



발전기금 간편접수 <https://love.wsu.ac.kr>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우송의 푸른꿈'을 키워가겠습니다.



# 우송의 푸른꿈

vol. 01



## 우송의 푸른 꿈,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우송의 특성화·글로벌의 첫 걸음을 내디딘 후 어느덧 '특성화 70년, 글로벌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송대는 '입학-졸업-취업' 전 과정 학생지원 지원시스템, '실무중심 역량교육'에 집중하며 학생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온 해외 명문대학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디지털 캠퍼스 구현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송의 교육 노하우는 연륜으로 쌓이고 변화에 대한 열정은 소나무처럼 젊고 푸른 기상으로 빛을 발합니다.

우송가족 여러분, 우송(又松)은 이름처럼 변함없는 푸름으로 늘 곁에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요.

여러분의 애정과 응원이 우송의 희망입니다.

우송대학교 총장  
오덕성



| 2022년 교육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협력기반구축형' 선정, 6년간 120억 원 지원**

| 2021년 교육부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2020년 교육부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

# WOOSONG





#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

## - 총 645억원 -

**대학혁신지원사업(1주기, 2주기)**  
(교육부, 2018.3 ~ 2025.2, 278.7억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교육부, 2022.5 ~ 2028.2, 120억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 ~ 2023.12, 180억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_바이오헬스**  
(교육부, 2021.5 ~ 2027.2, 60억원)

**캠퍼스 아시아-AIMS 사업(PAMS 프로그램)**  
(교육부, 2021.3 ~ 2026.2, 6억원)

## 창업 성과 우수

- 2022 학생창업 유망팀 300 최종 6개팀 선정 전국 6위(70개 선정 대학 중)
- 2021 학생창업 매출 총청권 1위 (전국 11위, 대학정보공시)
- 2021 학생교내 창업기업수 9개, 전국 4위 (서울대와 공동, 대학정보공시)
- 2020 학생교내 창업기업수 12개, 전국 1위 (한양대와 공동, 대학정보공시)

## 글로벌 네트워크 & 해외 연수

-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세계 상위 5%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 솔브릿지-미국 노스웨스턴주립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혁신과 창업 연수 81명
- 프랑스 폴 보퀴즈 공동교육과정 운영 187명
-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CETT-UB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127명
- 미국 UC버클리대학, 페어몬트 주립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등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취업(해외취업)

- 3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2017~2019 대학정보공시\_‘나’그룹)
- 솔브릿지경영학부 이하진 미국 아마존(Amazon)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 간호학과 이소현 미국 West Virginia University Medicine 루비 메모리얼 병원 간호사
- 작업치료학과 최고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로빌 Skilled nursing facility 작업치료사

## 美 작업치료사된 우송대 졸업생

최고은 씨 현지 요양시설 취업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실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졸업(2016년)한 최고은 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캘리포니아 오로빌 전문요양시설인 Skilled Nursing Facility에 취업해 재활분야 선진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우송대에 따르면 최 씨는 작업치료사로서 환자의 일상생활능력과 훈련, 가정방문평가, 보호자 교육, 인지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자가 입원 전 주거 환경으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을 위해 선 반드시 대학(6년) 과정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우송대가 세계작업치료연맹(WFOT)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 최 씨는 재학 중 교육과정을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최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작업치료 분야 세계적 명문대학인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다. 김학만 보건복지대학장은 “WFOT 교육과정 인증 덕분에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면 해외 대학 작업치료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우송대는 입학하면서 학생들이 영어집중프로그램,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해외취업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송대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20년간 677명의 작업치료사를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대형병원과 다양한 임상기관에 취업,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지 전문요양시설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우송대 졸업생 최고은(오른쪽) 씨. 우송대 제공



신원기 세계 최정상급 조리학교인 프랑스 폴 보퀴즈의 필립 바르망 교수가 지난 16일 대전 우송대에서 외식조리분야 재학생들에게 프랑스 요리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프랑스 대표 조리학교 '폴 보퀴즈대'와 공동학위과정

**OAE 우송대학교**

“3일 동안 만난 우송대 학생들의 삶이 있는 눈빛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유명 셰프이자 프랑스 폴 보퀴즈(Institut Paul Bocuse) 교수인 필립 바르망이 지난 16일부터 3일간 우송대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 총주방장을 지낸 그가 우송대에서 특별 강의를 한 것은 오는 9월 우송대와 폴 보퀴즈대가 공동학위과정 개설을 앞두고 긴밀하게 교류하기 위해서다.

조리 명문 폴 보퀴즈대와 공동학위과정 개설 폴 보퀴즈는 프랑스 3대 셰프로 꼽히는 폴 보퀴즈(Paul Bocuse)와 프랑스 호텔 그룹 Accor Hotel의 창립자 제랄드 벨리 스 회장이 1990년 설립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외식조리-호텔경영대학이다. 폴 보퀴즈와 공동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국내 대학은 우송대가 유일하다. 우송대는 이를 위해 호텔외식조리대학, 솔 인터내셔널 스쿨(Sol International School)의 조리 관련 전공 2학년 가운데 50명을 선발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이 3년간 프랑스 현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양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유학

을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요리 실력을 쌓게 된다. 2015년 우송대는 프랑스 폴 보퀴즈가 주관하는 글로벌 외식조리대학 협의체인 ‘폴 보퀴즈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의 15번째 멤버가 됐다.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외식조리대학들로 구성된 이 협의체에 한국에선 우송대가 처음 가입했다. 우송대는 지난해 6월 폴 보퀴즈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이번 학기에 폴 보퀴즈 학생이 우송대에서 연수를 받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식(국제)대학 개원 -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 폴 보퀴즈는 글로벌 인재의 집중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존 엔디쉬 총장을 초빙하면서부터다. 2007년 설립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는 40여 개국 출신의 국유학생들이 영어권외의 체계적인 선진 커리큘럼 등 우수한 여건 아래 공부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세계 상위 5% 우수대학인 보우한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받았다. 2016년 AACSB로부터 ‘올해의 혁신프로그램’을 받아 아시아 수준급 국제경영대학 반열에 올랐다. 우송대는 조리, 호텔, 월드,

의료서비스경영, 글로벌마케팅 분야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해외취업이 가능한 인재로 기르자 100% 영어로 강의하는 ‘솔 인터내셔널 스쿨’도 신설했다. 이제 우송대는 해외 40여개국의 유학생 1500여명이 다니는 글로벌캠퍼스가 됐다. 우송대는 지난 4월 교육부의 대학자율여력 강화지원사업(ACE+) 대상으로 선정돼 4년간 50여억 원을 지원받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엔디컷국제대학’도 지난 3월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마이클 소프트, 소니 등 세계 유수 기업 자문위원을 거친 테크 총리위원대 학원장 겸 학원장 디팍 박사(Dr. Dipak C. Jain)를 비롯, 7개국 11명의 해외 석학이 참석했다. 우송대는 이들을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의 교수진 절반은 외국인으로 유망하며, 배니 지만트, 글로벌비즈니스, 기술경영, 국제, 엔디컷자유전공 등 총 5개 학부(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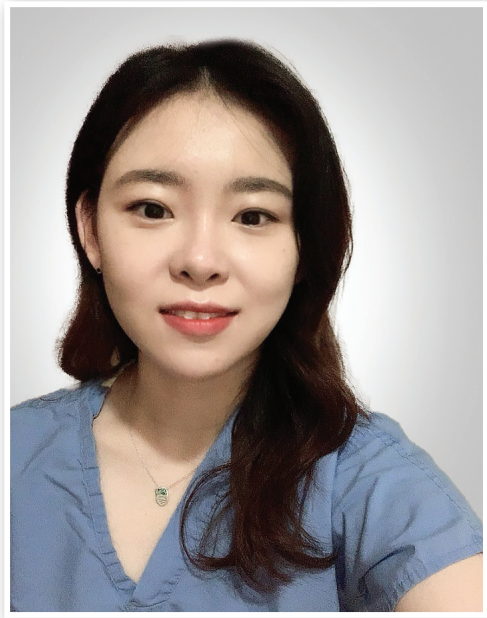
김홍기 엔디컷국제대학장은 “혁신적·창의적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송대 제공

# 세계를 누비는 자랑스러운 우승인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뜻하는 말이다. 우승대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을 마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노력처럼, 이 지면을 통해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 '자랑스러운 우승인'을 연속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한계점을 두는 것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 자신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소현 | 간호학과 16학번 / 미국 간호사로 근무

“미국 페어몬트 주립대학교(Fairmont State University)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우승대 간호학과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였어요.”  
2020년 졸업한 이소현 씨는 현재 미국 WVU(West Virginia University) Medicine의 루비 메모리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입학하기 전부터 미국 페어몬트 주립대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우승대 간호학과로의 진학을 원했다.  
미국에서 전문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싶었던 그녀는 간호학과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외국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환경, 원서로 배운 전공 등. 제2외국어로 배운 아랍어는 의외의 기회를 열어줬다. 병원 내 아랍계 의사들과 친해지면서 의학지식 같은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학생 자기주도 해외탐방 프로그램인 Sol-Challenge를 통해 다녀온 미국연수는 그녀가 마취전문간호사(CRNA)의 세계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미국간호사면허(NCLEX-RN) 취득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었다.  
이소현씨는 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점 3가지를 꼽았다. 첫째, 병원은 팀워크가 중요한 곳이므로 신뢰를 쌓는 것, 둘째, 미국에서 근무하고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주권(이소현씨는 2022년 3월 병원 근무 1년 반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보면 영주권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한다.) 셋째는 언어이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데 무엇보다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생활은 대체로 여유 있고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 친한 동료들의 집에 식사초대를 받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있다.  
그녀는 1년 단위로 꿈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다 보니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한계점을 두는 것도 자신인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싶단다. 이소현씨는 병원에서 다양한 분야와 포지션에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전문 의료인이 되고 싶은 꿈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완전한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잃는 것은 없다.  
최선을 다해 고민한 후에 온전히 자신의 결정이어야  
후회하지 않는다. 용기를 가져라!**



박용철 | 외식조리학과 03학번 / 영국 런던 소재 'sollip' 레스토랑 창업

지난 2월, 영국에서 한국인 셰프로는 처음으로 미술생 별을 받아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박용철 셰프다. 런던에 그의 아내와 함께 레스토랑 sollip 을 오픈한지 1년 만이다. sollip은 한국 식재료로 포인트를 준 프랑스 요리가 메인이다. 미술생은 sollip의 음식을 '진심이 담긴 요리'라고 평했다. 프랑스 요리를 기반으로 한국식 풍미를 더한 요리의 진심이 영국에서 통한 것이다.  
요리처럼 박용철 셰프의 삶과 꿈도 진심 그 자체였다. 어릴 때부터 셰프를 꿈꿨던 그는 외식조리학과 3기로 동기, 선후배와 함께 고등학생처럼 공부하고 부대끼는 시간이 많았던 그때를 아름답게 추억한다. 전망은 물론 최고 설비의 우승대 실습실에서의 실습, 새벽 6시부터 진행되는 블랙퍼스트 강의, 블록제 수업, 외국인 교수님과의 수업 등등 오늘의 박용철을 키워준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의 인생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년간의 미국 인턴십이다. 요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책을 접했고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은 강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이 그에게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갖게 했다. 인턴십을 마친 박용철 셰프는 르 꼬르동 블루 런던으로 건너가 자신의 꿈을 굳건히 했다.  
타국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었다. 영국, 미국, 한국에서 일하며 셰프로서의 경력을 넓혀 갔다.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므로 묵묵히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그렇지만 열정을 다해 걸어온 길이다. 셰프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잃는 것은 없으며 최선을 다해 고민한 후에 온전히 자신의 결정이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단다.  
박용철 셰프처럼 인생을 개척한 수많은 선배들의 뒷모습을 우리 우승의 후배들이 닮기를 기대하며 그의 앞날에 우승인들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다른 문화에 대한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  
나를 솔브릿지로 이끌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나를 꿈꾼다.**



Wihartono Yehezkiel Keane

| 인도네시아 유학생 동문 / 동원그룹 근무

Keane씨는 2021년 8월 솔브릿지경영학부를 졸업했다. 지난해 8월 동원그룹 해외영업부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후, 올 1월 정규직원이 되었다. 현재 회사에서 외국선원 구인 및 관리 지원 업무를 하고있다.  
그는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다보니 사회성과 함께 그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법을 키울 수 있었다. 학창시절에 영어교육봉사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한국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에 적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함께 종교 활동과 축구를 하기도 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수와 친구들의 도움,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 익힌 한국문화 덕분에 한국회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 맞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학교활동을 해나가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좀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Keane씨. 솔브릿지의 이상처럼 아시아를 이끄는 인재로 훌쩍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사제동행

좋은 인연은 아름답다.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우송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꿈을 이루며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하는 인연들이 넘쳐난다. 먼저 박상진 교수와 그의 제자 이희성씨가 풀어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박상진 \_ 전 철도건설시스템학부 교수  
우송대 개교멤버로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로 와서 27년 재직 후 올 2월 퇴직.  
마음으로 아끼던 제자 이희성을 지난 8월 사위로 맞아 가족이 되었다.

회성이 보거라.  
마부작침(磨斧作針). 자네들에게 귀가 따갑게 강조하던 말 기억나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 내가 그래왔듯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꿈을 이뤘으면 하는 나의 소망이 담긴 잔소리였네.  
돌아보면 자네는 그런 나의 가르침을 조용히 따라와 지금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 자네를 포함한 내 제자들에게 나는 감히 '내 배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네. 자네들도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존재할까요?' 라는 말로 나를 울컥하게 했지. 그 당시의 가장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나도 가정보다는 학교에 온 애정을 다 쏟아왔어. 가족보다 제자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강의실과 연구실이 세계의 전부였던 셈이지. 그런 열정과 정성을 부모님들도 알아주셨던 모양인지, 자네가 일본에 유학 간 이후에도 자네 부모님은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지. 그분들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결을 닮아 고왔던 자네를 떠올리곤 했어.  
지난 2월은 27년간의 내 교직생활을 마감하던 때였네. 27년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나는 과연 뭘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첫 번째는 성심으로 키운 제자를 내 식구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었네. 두 번째는 내가 열정으로 우송대를 키웠다는 우쭐함이 사라지며, 학생들 덕분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떠오르더군. 모든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이 말을 전하고 싶지만 자네에게 대표로 전해야겠네. 인생 살면서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장 아껴두었던 말을 하고 싶어. '나의 보람으로 당당하게 서준 제자들아, 정말로 고맙다!' 라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나는 단순한 교수와 제자 사이를 넘어 인생을 헤쳐 나가는 법, 바르게 서는 법, 꿈에 도달하는 법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었네. 이제는 내 옆에 서서 자네가 어떻게 세상의 장애를 뛰어넘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들려줄 차례네. 내 사위 이희성, 두 팔 벌려 환영하네.



<2010년 스승과 제자로>



<2022년 장인과 사위로>

이희성 \_ 건축토목환경학부 99학번  
군대 다녀오고 2학년 1학기 때 환경공학 수업을 들으며 박상진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박상진교수 연구실에서 공부하며 석사를 마쳤다. 일본 후쿠오카 키타큐슈 규슈공업대학교 생명체공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땀다. 현재는 환경부 산하 화학안전원 연구사로 근무 중이며 박상진 교수의 사위가 되었다

석사를 마치며 교수님께 드린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존경하는 또 한분의 아버지께' 라고 서두를 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교수님은 저에게 스승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주저앉으려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어둠이 저를 에워싸 머뭇거릴 때, 문을 열어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유학자금이 부족할까봐 저를 조교로 일하게 하고 그 월급을 적금 들게 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셨고, 여비도 2백이나 챙겨주신 일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유학생할 2년차에는 문무성 장학금을 무조건 타야한다고 독려해주셔서 그 장학금을 받아 유학생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좁은 일본 자취방에 정종을 사들고 오셔서 3일을 묵고 가셨지요.  
친구처럼, 스승처럼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행동반경이 좁아 일본어가 늘지 않음을 알아채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런 세세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고마움으로 꼭꼭 담아두었습니다. 남들은 저 혼자 제 앞길을 개척해 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비마다 구원자처럼 저의 어려움을 척척 해결해주신 교수님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12년 전 편지에 쓴 '또 한분의 아버지' 라는 말이 무슨 예언처럼 이루어지니 저도 신기합니다. 행복한 '얼떨떨함' 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에게서 저에게 온 가르침이 세상의 빛으로 실현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애정을 담뿍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 Happy Together

## 발전기금 기부자 소식

### 우송에서 14년을 근무하고 우송 발전을 위해 거액을 쾌척한 존 엔디컷 전 총장님이 우송가족들에게 태평양 너머에서 반가운 편지를 보냈다.



우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득 문득 한국 생활이 그리기는 하지만 대신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 누군가 딱히 예쁘다고 꼽을 수 없는 것처럼 우송에서의 어떤 기억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굳이 꼽아야 한다면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기억은 교육부로부터 첫 ACE 사업을 따냈던 것, 솔브릿지가 AACSB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 2018년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짜릿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송에 있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솔브릿지를 성공적인 국제경영대학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우송대학교의 글로벌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했고 그 결과 솔브릿지가 명문 국제경영대학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것은 저의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저의 철학 때문에 아낌없이 발전기금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학생의 성공이 곧 학교의 발전이고 더 나아가 나라가, 세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학교에 기부한 것은 제 마음은 늘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공군으로 근무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주요기관 합동참모본부장, 국방장관을 위한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소를 3년간 이끌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20년간 교수로, 싱크탱크 연구소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동북 아시아의 제한된 비핵화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여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동북아시아 비핵화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송에서 남은 꿈을 다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송은 엔디컷 컬리지와 엔디컷 빌딩으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이 학교명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가문으로도 가장 큰 영예입니다. 제 인생에 대해 '그래, 당신 정말 잘 살았군!'하는 멋진 성적표와 다름없습니다. 그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함은 제가 아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름이 우송에 남아 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늘 우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송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모두 행운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학교에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혁신적인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낸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단과별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각 단과대학이 개성 있게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송에서 낯아들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며 마음과 애정을 늘 태평양 너머의 우송, 작지만 큰 저력을 보여줄 우송에게 보냅니다.  
See You, Again!  
진심의를 담아, 존 엔디컷 드림

### 이제는 교수가 기억하는 존 엔디컷 전 총장



“Ms. Lee, Shall we?”  
중요한 인터뷰나 연설을 앞두고 엔디컷 전 총장님이 제게 건넸던 다정한 이 말이 여전히 귓가를 울립니다. 통역자로 전 총장님 곁에 있었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두 번 올랐으며 훌륭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말에 긴장감으로 맞았던 처음 만남. 그러나 누구보다 대전과 우송대와 학생을 사랑했으며 둘째라면 서러울 열혈 한화 이글스 팬이었던 전 총장님은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냉면을, 겨울에는 비찌개를 즐겨 드셨으며 주거지였던 태평동 재래시장 가는 것을 좋아했던 소박한 분이었습니다.  
엔디컷빌딩은 총장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촉촉이 물기가 차오르던 눈가를 보며 그 분의 마음을 읽었으니까요. 그 분은 성장, 양성, 발전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고 학생의 요구를 섬세하게 알아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온화함의 기운을 우송대에 남겨놓았습니다. 긴 여운으로 남는 그분의 따뜻함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닳고 싶습니다. “Shall we?”

### '가족(家族)'은 사랑입니다. / 정태영 직원



우송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며 서서히 우며든(뉘 우송가족이 된) 정태영님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우송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영입니다. 오덕성총장님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에 입사한지는 만 17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3월 우송대 발전기금을 내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우송에 대한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지면을 통해서 자랑처럼 알리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저는 김성경이사장님 10년, 존 엔디컷 전 총장님 7년, 오덕성 총장님을 1년 2개월 간 옆에서 수행해왔습니다. 존 엔디컷 전 총장님을 모실 때 가장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달랐으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총장님이 CNN방송을 즐겨보시는 것을 알고 어김없이 그 방송을 보고 자막은 사진으로 찍어서 사전을 찾는 식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아침에 제 차에 오르면 오늘 CNN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있더라, 하는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열어갔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저의 영어실력도 점점 늘어 캠퍼스 안에서 외국인 교수님이라도 마주치면 자신 있게 인사말을 건네는 저를 봤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송의 변하지 않는 기조는 국제화와 특성화였습니다. 우송 안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저 자신도-이런 말이 민망하지만-외국에서 온 손님들과 간단한 의사소통과 그들의 니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한 번은 솔브릿지국제대학 AACSB 인증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AACSB 위원장님을 인천공항에서 모셔 와야 했습니다. 바로 우송대로 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분께서 인사동을 들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학교에 연락을 하고 그 분을 모시고 인사동에 가서 쇼핑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에 전해지던 AACSB 인증 소식에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AACSB 재 인증 때는 다른 위원장님이 왔습니다. 그 분이 저를 보더니 “당신이 미스터 정입니까? 전 위원장님이 한국에 가면 미스터 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의 기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감동적이었으니까요.  
기업에서 수행비서를 한사람이 쓴 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님과의 첫 만남이 중요한 만큼 수행비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사명처럼 가슴에 두고 부드러운 매너,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요령, 편안한 운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분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은 우송대 중국어과를 다니며 북경외대 2+2 프로그램도 다녀오고 대학원 석사를 마쳤습니다. 대학교 4학년, 대학원까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반듯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셋째인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우송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우송가족(家族)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저도 우송 안에서 컸다는 말을 감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송에 미약하지만 작은 마음이나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빨리 가지만 돌아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도 우송이 그려갈 역사에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그랬듯이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른 우송인들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늘 편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W17



기업입국의 꿈에 더하여  
교육입국의 꿈을 실현코자  
일생을 바치신 우송선생,  
가산을 모두 모아  
이곳에 우송학원의 터전을 마련하시다.

1954년 우송학원 설립: 대전동중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 개교  
1963년 우송정보대학, 우송공업대학 개교  
1994년 우송대학교 개교



설립자 (1916~2005)  
우송(又松) 김정우 선생

##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2022년 5월 기준)

### 교직원



명예이사장  
김성경  
4억원



우송대 3대 총장  
John E. Endicott  
1억 천만원

일억원 미만  
오천만원 이상

김중현 신명곤

오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LIU LU 강암구 김선중  
노영환 양병준 양승열  
이성준 이지은 이해욱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이상

김광희 김기영 김대수  
이달영 이동우 이상덕  
한창완

오백만원 미만  
백만원 이상

김계희 김기혁 김명화  
박병훈 심윤무 심장섭  
이용상 이진선 임병훈  
홍숙자 황선경

백만원 미만

김현숙 김혜영 박안나  
송인근

김시중 김 원 김학만  
어성욱 오덕성 윤기홍  
정윤모 정찬목 채영석

김삼택 변명우 성원경  
이현주 정상직 조원권

김상률 김조용 김홍기  
오석태 오희국 유지권  
조상운 진고환 하복동

박재영 박태운 서기범

### 가족회사



하나은행  
24억 5천만원



인성정보  
1억원



비트컴퓨터  
6천 6백만원

오천만원 이상

(주)보성엔지니어링

오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LG전자 우남군 전 사장  
(주)동양강철  
(주)코도스인터내셔널  
대한불교 조계종 광제사

LG전자 황운광 전 부사장  
(주)레드캡투어  
(주)토니모리  
미림조경(주)

(주)LG유플러스  
(주)제이스통상  
(주)한연

(주)기흥기업  
(주)지아이티아카데미  
(주)홍삼단

천만원 미만

(재)팀선교회  
(주)메스코리아  
(주)에스원  
(주)케이지엔지  
광성기업(주)  
동명전기  
월드브리지(주)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

(주)금성백주택  
(주)신궁정통한과  
(주)제이에스네트웍스  
(주)타스코아이  
대라수건설(주)  
솔사랑회  
임화춘보성녹차  
한국표준협회

(주)금성이엔씨  
(주)신세계푸드  
(주)종합건축이공  
(주)한성식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우리농산물(주)  
큰우리요양병원

(주)디엔비건축사무소  
(주)아키텍케이엘종합건축사무소  
(주)청우엔티  
(합)부원전기  
대한보청기판매(주)  
우민전기(주)  
피노키오유치원

### 동문 / 일반인



조갑연 우송대 총동문회장  
우송대 총학생회  
1억 천백만원



Xu Yun Fei (서운비)  
국제경영학과 05  
1억 5천만원



박한길  
에터미(주) 회장  
1억원

천만원 이상

SGP  
오정근  
제223 학군단 총동문회

간호학과 1기 동창회  
위미혜

강영일  
이상준

고석두 둔산대형약국  
정필오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이상

김명수 외 3명  
허미정 프로골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08

구수환

우송비트교육센터 1기 동창회

이경희

오백만원 미만  
백만원 이상

Vincent de Monfreid  
(방상 드 몽프레)  
프랑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호식 잉글리쉬플러스  
신상호  
이만근  
외식조리영양학부 총동문회

(재)인도네시아 동문회  
권유진  
김홍주 디엠티(주)  
신주혁  
이수정  
정해용

간호학과 4기 동창회  
권혁주 (주)플랜지  
부혜숙  
우송팔콘스  
이진실  
최장길

강미옥  
김태진 동림산업(주)  
송중빈 보우건설(주)  
유지왕  
임연주  
허준영

백만원 미만  
오십만원 이상

김수진  
안지수

김한서  
우주희

박세원  
정재일

성기철  
최연섭

오십만원 미만

간호학과 15학번 동창회  
조규현

김봉신  
최성덕

이경숙  
최연진

이화령 외 4명  
한현옥

